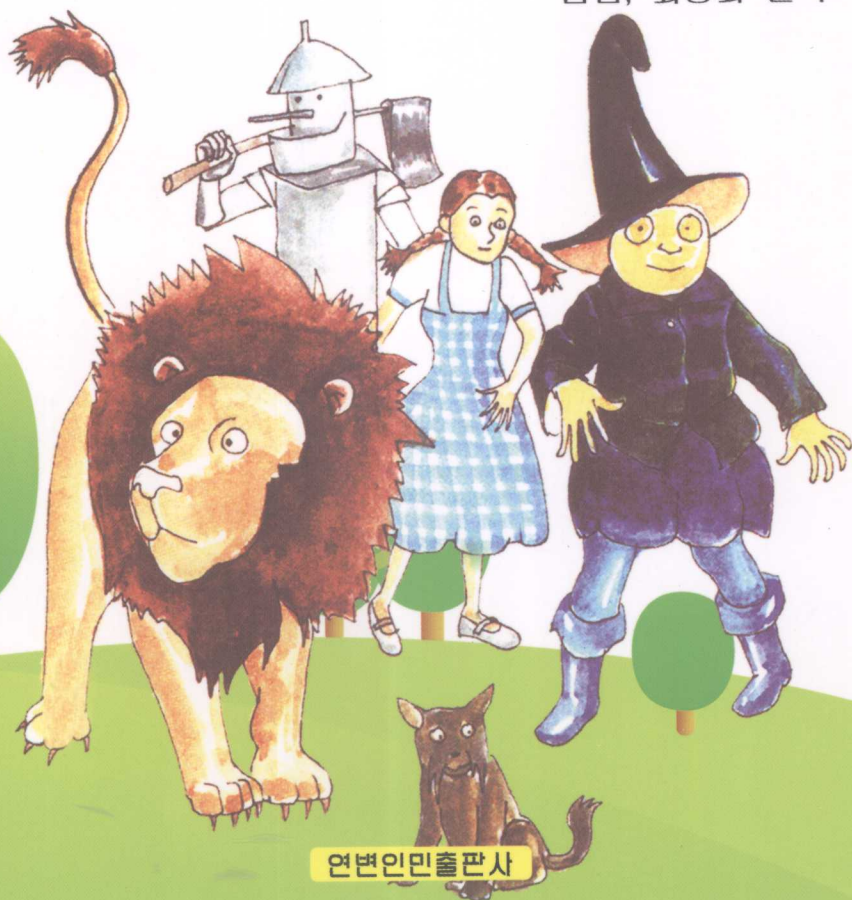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세계명작!



오즈의 마법사

프랭크 저
김엽, 최향화 편역



연변인민출판사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세계명작!

오즈의 마법사

프랭크 저

김엽 최향화 편역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향화

책임교정: 최순란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伍兹的魔法师 / (美)鲍姆著; 金叶, 崔香花编译.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 9

ISBN 7-80698-769-X

I. 伍... II. ①鲍... ②金... ③崔... III. 儿童文学—长篇小说—美国—现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712.8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115341号

伍兹的魔法师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4.125 字数: 100 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769-X / I · 108 (民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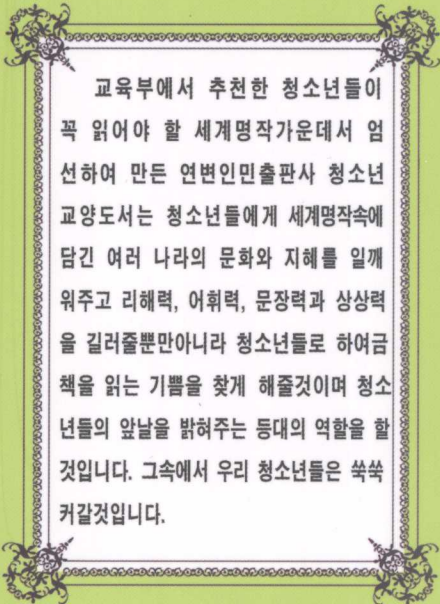
版次: 2006年9月第1版

2006年9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4.8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교육부에서 추천한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세계명작가운데서 엄
선하여 만든 연변인민출판사 청소년
교양도서는 청소년들에게 세계명작속에
담긴 여러 나라의 문화와 지혜를 일깨
워주고 리해력, 어휘력, 문장력과 상상력
을 길러줄뿐만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책을 읽는 기쁨을 찾게 해줄것이며 청소
년들의 앞날을 밝혀주는 등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쑥쑥
커갈것입니다.

책꽂이에 없어서는 안될 도서들: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세계명작!

《아라비안나이트》

《동물농장》

《탈무드》

《늑대소년 모글리》

《플랜더스의 개》

《마지막 잎새》

《로인과 바다》

《오즈의 마법사》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세계의 발명발견이야기》

《두뇌를 좋게 해주는 도전 700 수수께끼》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노벨수상자들의 학습이야기》

《중국아이들이 뽑은 301가지 궁금증》

《윤동주대표시 해설과 감상》

작품안내

미국작가 프랭크(1856~1919)의 장편동화 《오즈의 마법사》는 1900년에 발표되자마자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작품의 첫시작부터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강아지 토토와 함께 오즈의 나라에 간 고아소녀 도로시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도로시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섭고도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겠다는 결심으로 토토와 함께 길을 떠나는데 여행중에 뇌를 갖고싶다는 허수아비와 심장을 갖고싶어하는 양철나무꾼 그리고 겁이 많아서 용기를 얻고싶어하는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유모아적이면서도 창의력과 재미가 있는 여행속에 새롭고도 독특한 등장인물들과 더불어 멋진 모험과 환

상의 세계를 펼쳐주는 《오즈의 마법사》는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구촌어린이들의 깊은 호기심을 자아
내고있습니다.

차 례

작품안내	151쪽부터 151쪽
날아간 도로시	1
북쪽마녀의 입맞춤	5
몽크킨의 허수아비	15
숲속의 양철나무꾼	22
겁쟁이사자	29
에메랄드시를 향하여	35
양귀비꽃밭을 지나서	42
오즈나라의 위대한 마법사	51
사라진 서쪽마녀	62
날개 달린 원숭이와 황금모자	73
오즈의 비밀	80
풍선 타고 날아간 오즈	87

남쪽나라 마녀를 찾아서	94
아름다운 도자기나라	101
돌머리들의 공격	107
남쪽마녀 글린다	115
돌아온 도로시	121



날아간 도로시



도로시는 캔자스에서 살았다. 고아가 된 도로시를 헨리삼촌과 엠숙모가 돌봐주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아주 작았다. 방은 하나뿐이었고 가구도 찬장과 식탁, 의자와 침대 두개가 전부였다. 다락방도 지하실도 없었다. 그 대신 마루바닥에는 뚜껑이 하나 있었고 그속에는 굴같은 구멍이가 있었다.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 때 숨는 곳이었다.

헨리삼촌과 엠숙모는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나무 한

그루, 집 한채도 없는 넓은 벌판에서 도로시의 유일한 친구는 또또였다. 도로시는 또또를 무척 좋아했다.

《엠, 회오리바람이야, 난 외양간에 가 봐야겠어.》

문앞에서 하늘을 보고있던 삼촌이 다급하게 말했다. 하늘은 컴컴해지고 요란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도로시! 빨리 피해, 얼른 구덩이로 내려가.》

엠숙모가 도로시에게 소리쳤다. 도로시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순간 놀란 또또가 침대밑으로 들어갔다. 도로시



가 또또를 잡으려 간 사이에 엠숙모가 먼저 구덩이로 내려갔다. 또또를 붙잡은 도로시가 구덩이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다.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과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부딪치면서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 회오리바람은 집을 하늘로 붕 떠오르게 했고 자꾸만 더 높이 올라가게 했다. 도로시는 수천킬로미터를 날아 낮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

바람은 계속 불었고 주위는 캄캄했다. 도로시는 집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재미있었다. 그러나 또또는 불안한듯 왔다갔다하다가 열려있는 문 밑으로 떨어질뻔했다.

몇시간이 지나자 도로시는 무서워졌다.

(집이 저 아래로 떨어지면 어찌지? 그래서 산산조각이 난다면?)

그러나 아무 일 없이 몇시간이 흘렀다.

(겁먹지 말자. 괜찮을거야.)

도로시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도로시는 마루바닥을 기어서 침대로 갔다. 그리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북쪽마녀의 입맞춤



쿵!

집이 어딘가에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도로시는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앉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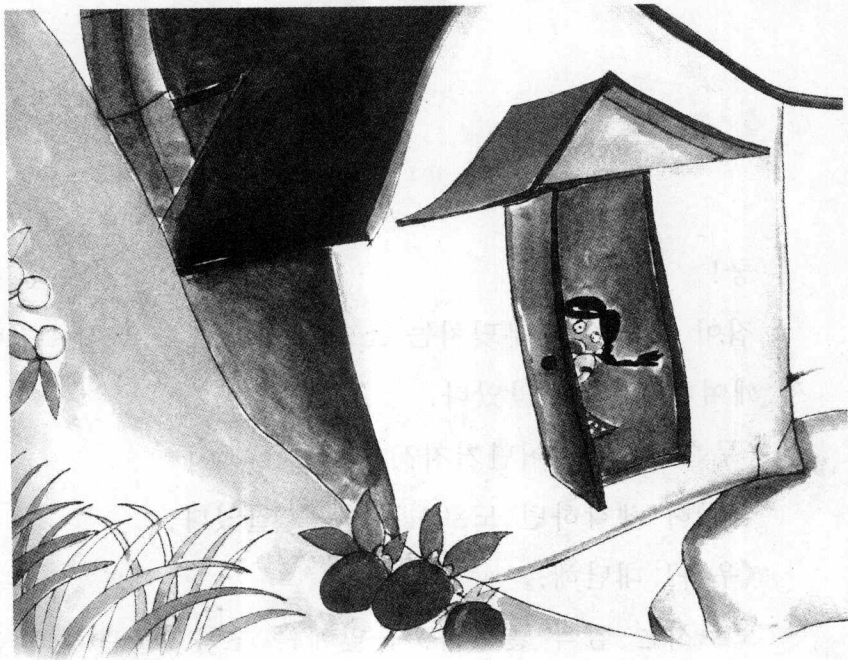
곰곰히 생각하던 도로시는 문을 열었다.

《우와! 대단해.》

도로시는 깜짝 놀랐다. 눈앞에는 초록빛들판과 먹음

직스러운 과일들이 매달린 나무와 예쁜 꽃들로 가득했다. 새들이 꽃과 꽃사이를 날아다니고 맑은 시내물소리도 들려왔다.

주위를 살피던 도로시는 자기에게 오고있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남자 셋과 여자 하나였는데 이상한 차림을 하고있었다. 키는 도로시와 비슷하고 두뼘정도 되는 원뿔모양의 모자를 쓰고있었다. 모자에는 소리가 나는 작은 공이 달려있었다. 남자들은 파란색모자에 파란색옷을



입었고 코가 살짝 들린 윤이 나는 장화를 신고있었다.

녀자는 네명중 나이가 가장 많아보였다. 주름살이 깊게 패여있었다. 녀자의 만또에는 별들이 박혀있었는데 그곳에서 빛이 났다.

녀자는 도로시앞으로 다가왔다.

《마법사님, 몽크킨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도로시는 어리둥절했다.

《마법사라뇨? 저는 마법사가 아니예요. 이곳은 어디지요?》

《당신은 동쪽마녀를 죽게 한 위대한 마법사입니다. 이곳은 몽크킨입니다. 오즈나라중 동쪽에 있는 나라죠. 당신때문에 몽크킨의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내가 마녀를 죽였다구요?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도로시의 놀란 표정을 본 녀자는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집모통이를 가리켰다.

《보이지요? 저 구두의 주인이 동쪽마녀랍니다.》

녀자가 가리킨 곳을 본 도로시는 깜짝 놀랐다. 도로시의 집밑으로 은구두를 신은 두발이 보였다.



《어머나, 어떻게 해요? 제가 타고 온 집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도로시는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못된 마녀지요. 뭉크킨 사람들은 오래동안 동쪽마녀의 노예로 살았어요. 이제 마